

RISE! 지역 혁신 위한 공생과 도전

우석대,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 개최... RISE 체계 성공 전략 소개 · 지산학 혁신모델 제안 발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5일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망대 W-SKY 23에서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박노준 총장을 비롯해 지자체·대학·연구기관·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하며 혁신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 'RISE! 지역 혁신을 위한 공생과 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과 주제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에 앞서 정희석 RISE 추진단장은 우석대학교의 RISE 사업 비전인 'WIN-RISE(Woosuk+INnovation)'를 소개하며, "지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해 전북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강연에서 문승태 국립순천대학교 부총장은 RISE 체계의 성공 전략으로 △핀란드와 일본의 우수 사례 벤치마킹 △지역산업과의 협력 강화 △지방 대학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혁신적인 정책 실행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이지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추진단장은 "전북특별자치도 RISE



우석대학교는 25일 대학 본관 23층 원주·우석 전망대 W-SKY 23에서 '제1회 공생과 도전 전북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 유희대 원주군수,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사업을 통한 지·산·학 혁신모델 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문성철 원주군 부군수, 김도연 전북특별자치도 대학협력팀장, 정한기 비나테크(주) 사장, 문상진 두산

퓨얼셀 상무, 김은하 군장대학교 기획처장, 전필성 특허법인 현문 대표 변리사, 진병기 더드림위커 대표가 지역발전과 대학의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박노준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비롯

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함께 모여 지역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번 포럼이 지역 혁신을 위한 도전과 협력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 및 앞마당에서 청소년 흡연·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을 위한 '노담노마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유해 약물 예방 위한 특별한 토크콘서트

전북교육청, '노담노마' 토크콘서트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5일 2층 강당 및 앞마당에서 청소년 흡연·마약류 등 유해 약물 예방을 위한 '노담노마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과 교사가 흡연·마약류 등 유해 약물을 주제로 전문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을 가짐으로써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유해 약물 예방 교육을 펼치기 위한 도전과 협력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문가 토크 '흡연 예방,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학생, 교사,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유해 약물사용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솔직토론 △가수 남태현과 함께하는 유해약물 예방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남태현은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회복과 재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서기 문제제간감각장은 "이번 토크콘서트가 흡연 및 마약 예방에 대한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생각을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전북교육청도 학생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유해 약물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정기인사 추진 중등교원 인사업무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5년 3월 1일자 정기인사 추진을 위한 중등교원 인사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중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중등인사담당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기인사를 위한 주요 업무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된「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도서?벽지, 농어촌학교 이외의 학교 규모별 승진기간점 △신설학교 및 전환학교 근무 경력 승진기간점 적용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은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출발점"이라며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내실 있는 인사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호원대, 지역사회와

함께한 K-컬처 공연 성료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22일 오후 5시부터 군산시 어린이공연장에서 펼쳐진 K-컬처 공연 '캠프스톤 더 자인' 지역사회 공연장에서 작품 실연: 어디로든 문'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다.

이번 공연은 호원대 K-POP학부 학생들이 공연 기획부터 무대 실습까지 전 과정을 직접 참여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K-컬처 특성화와 지역사회 협력을 목표로, K-POP학부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공연에는 K-POP학부 학생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군산시민과 지역 내 학교(군산제일고) 학생들이 초청돼 다채롭고 풍성한 무대를 즐겼다.

한편, 호원대학교는 오는 27일 오후 5시 호원대 문화체육관에서 '한음시'의 틈을 메우는 선율' 콘서트를 개최한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대, 9개국 36개 대학에 교환학생 100여명 파견

최대 1년간 교육과정 이수 현지문화체험 등 활동 참여

늦각이 학생 오종석씨 미국 파견 1년간 새 도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 명의 학생을 9개국 36개 자매결연 대학에 파견한다고 25일 밝혔다. 파견 대학으로는 독일 뉘스부르크에센대학, 말레이시아 말라야대학,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 영국 울버햄튼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등이다.

파견 학생들은 이 대학에서 최대 1년 간 전공 관련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다양한 글로벌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 파견 학생 중에는 늦각이 학생이 미국에서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나가며 주목을 받고 있다. 한옥학과에 재학 중인 오종석씨(1968년생)다.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전북



전북대학교는 1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100여 명의 학생을 9개국 36개 자매결연 대학에 파견한다. 사진은 파견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

대 한옥학과에 입학한 오 씨는 이번이 미국에 파견된다.

오 씨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입학한 전북대학교에서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하다"며 "K-한옥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전북대는 프랑스 장물랭 리옹 3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이번에 처음

으로 이 대학에 5명의 교환학생을 파견한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환학생 파견이 학생들에게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선포식, 27일 원광대서

글로벌대학30 선정 따른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

원광대학교(총장 박성태)와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홍)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식을 27일 오후 2시 교내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원광대·원광보건대가 2024년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됨에 따라 구성원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산·학·병·연 기관 연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선포식은 전북특별자치도, 익

산시, 원광대, 원광보건대가 공동 주최하고,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주관하는 가운데 지자체, 대학, 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포식은 원광대 동문 중창단 축하 공연으로 시작해, 황진수 원광대 부총장이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서를 발표하고, 주요 참석자들의 원광대·원광보건대 글로벌대학30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 선포가 이어진다.

한편, 2024년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지역사회와 세계를 연결하며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통해 양 대학의 강점인 의료 및 보건 전(全) 분야 학과 보유 역량 및 RIS(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농생명·바이오 중심대학 역량을 결합해 건강하게 살고(의·생명), 안전하게 먹고(농생명), 행복하게 누리는(생명 서비스) 생명산업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주대, 남원시와 원푸드·백향과 홍보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코엑스 푸드위크 참가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20~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코엑스 푸드위크'에 참가, 남원시(시장 최경식)와 함께 원푸드(One Food) 및 백향과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31개국 1,054개사 1,846

부스 5.5만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이에 따르면 남원시 원푸드 생산 가공 업체는 2024년 지역혁신사업(RIS) 정책 자율과제 공모에 선정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식 광과 산업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개발된 남원 원푸드 백향과 캐러터인 '백향'이 중심으로



전주대학교에서 기술이전 한 다양한 백향과 제품들을 선보였다. /장은성 기자

남원·임실·순창 내 면 지역 초등생 대상 안전교육 실시

남원 이백초 시작으로 내달 12일까지 도내 17개 학교 찾아 학생 500여명 참여 예정... 학생수련원, 실습 중심 교육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수련원(원장 강양원)은 남원·임실·순창의 면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남원 이백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도내 17개 학교, 21기에 걸쳐 500여 명의 초등학생이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중 생활안전과 응급처치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모든 학생이 빠짐없이 체험하는 실습 중심 교육으

로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수련원의 안전교육은 2015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강양원 원장은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안전을 생활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학생수련원은 교육부의 '2023 종합형 학생안전 체험관 확충 사업'에 최종 선정, 2023년 10월 '학생안전체험관'으로 개관을 준비중이다. /장은성 기자

CO-SHOW 경진대회 연구재단 이사장상 수상

전주대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 'JAI' 팀

전주대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 20~22일 대구 EXCO에서 열린 '2024 CO-SHOW' 경진대회에서 본교 JAI팀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JAI팀은 전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1학년 학생들로 이성연 팀장, 김두현, 김효준, 오민현 팀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는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첨단 분야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OSS 사업 일환으로 미래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한 첨단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중에게 해당 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미래 첨단분야 인재들에게 교육적 영감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전주대 JAI팀은 인공지능연구소 사업의 AIM(AI Model) Challenge에서

무인 키오스크에 적용 가능한 AI 모델 개발을 주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단순히 기술과 이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혁신융합대학 사업 컨소시엄별 우수 사례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참여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장은성 기자